

# 국제 사료곡물가격 전망과 향후 대책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차장

## I. 국제사료곡물시장의 흐름

금년도 국제사료곡물시장을 강타한 세계 사료곡물 수급의 불안전은 수입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사료곡물 및 축산물 수출입국의 가격구조를 뒤흔들며 지난 '89년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저곡가 추세를 고곡가로 반전시키면서 불과 1년전만해도 C&F톤당 134불대에 머물던 옥수수가격을 245불대까지 폭등케하면서 세계곡물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수년간 미국농업의 골치덩어리로 부상되어 왔던 과잉재고가 해소되고, 경작제한면적까지 철폐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판매자 중심시장(Seal's Market)에 대한 기대에 차 있으며, 수입국들은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0여년간 누려오던 저곡가 시대가 무너지면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는 등 국내 사료업체와 양축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곡가폭등을 가져오게 한 주요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미산옥수수의 생산감소를 들을 수가 있는데 '95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지역인 중서부 콘벨트(Corn Belt) 지역을 찾아온 기상이변은 파종기에는 잦은 강우로 파종을 지연시켰고, 주요 생육기간인 5~8월 사이에는 건조기후(Hot and Dry Weather)로 생육이 저해되었으며 수확기에는 설상가상으로 서리피해까지 겹쳐 생산감축이 불가피해졌고, 주요 기타사료곡물 수출국들인 캐나다, 호주 등의 사료곡물 수출여력마저 크게 떨어지자 미산옥수수에 대한 수입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년 동안 누적되어온 미국의 재고물량을 단기간내 감소시키면서 곡가상승을 주도하였다.

또한 미산 옥수수의 재고감소와 함께 사료곡물의 강세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미산옥수수에 대한 대체곡물의 부족이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사료곡물 수입국들은 미산옥수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산 옥수수나 사료용 소맥, 대맥, 수수, 호밀 등을 사료원료로 많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기타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고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출여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중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들은 미산 옥수수나 수수를 수입해야 하는 수입국의 입장으로 돌변하였다.

또한 '95년부터는 WTO가 출범함으로써 그동안 EU나 캐나다 같은 사료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용 사료곡물의 수송시 보조해 주던 정부보조금을 중단함에 따라 곡가상승에 일조를 하였다. 금년들어서도 국제곡물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사료곡물재고량이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곡물 수요량은 줄지 않음으로서 국제사료곡물가격은 시카고 곡물시장의 개장 이래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지난 십여년동안 국제사료곡물시장에서는 사료곡물 수출을 둘러싸고 수출국간의 가격경쟁은 물론 곡종간의 가격경쟁도 격심하였으나 이제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

려우며, 어떻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어가고 있다.

## 2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동향과 전망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원료로 이용되는 주요 수입사료곡물로는 옥수수, 수수, 사료용 소맥, 호밀, 귀리 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 기름을 짜낸 부산물인 대두박, 채종박이 있고, 그밖에 소맥피, 알팔파, 타피오카, 루핀씨드 등 여러가지 원료들이 있다.

그중 옥수수는 우리나라 배합사료 원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양계용 사료원료에 있어서는 계란의 난황과 육계의 피부착색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표1. 주요 사료곡물 가격동향

(단위 : US\$/톤)

품 목	원산지	'94.12	'95.5(A)	'96.5(B)	대비(B/A)
옥수수	미 국	134	149	230	153.4
수 수	미 국	131	145	228	157.2
사료용소맥	캐나다	126	145	215	148.3
사료용대맥	캐나다	124	137	226	165.0
호 밀	E U	107	105	185	176.2
대두박	미국(48%)	231	248	325	131.0
	브라질	213	209	300	143.5
	인 도	215	219	312	142.5
채종박	캐나다	156	210	330	157.1
	인 도	110	145	155	106.9
면실박	중 국	135	140	160	114.3
소맥피	인도네시아	109	124	195	157.3
GSP	캐나다	92	106	150	141.5
타피오카	태 국	136	150	153	102.0
알팔파(펠렛)	미 국	120	145	165	113.8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양계사료의 비중이 높던 우리나라에서는 사료곡물 수입시 주로 옥수수 단일곡종에만 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타곡류로도 크게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이들 곡류별 주요시장 구성현황을 보면 옥수수의 경우 세계 총생산량은 1994/95년 기준으로 약 5.6억톤 이상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 한 나라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물량은 총생산량의 약 10%내외이며,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남아공 등이다. 지난 84년부터 중국이 수출국으로 부상되어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자국내 수요량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출국으로의 위치는 불안하다. 특히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높아서 세계 전체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들은 일본, 소련, EU, 대만, 한국 등으로 일본이 전체교역량의 25% 가량을 수입하며, 한국도 '95년에는 800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한 바 있다.

한편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수의 경우는 연간 약 600만톤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이 미국, 아르헨티나 수단 등에 의해 수출되고 있고 주요수입국은 일본, EU, 멕시코 등이나 최근들어 호주 등의 한발로 인해 수수의 교역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소맥은 사료용 소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저급소맥들이 주로 사료용으로 유통되며 해마다 교역되는 물량과 가격은 일정치 않다. 사료용 소맥의 주요수출국들은 EU, 캐나다, 호주 등이며 이들 3개국이 세계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들 국가의 수출역력은 급격히 감소하여 수출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두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두를 수입해다가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을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하거나 또는 대두박을 직접 수입해 오기도 한다.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이 약 1억1천7백만톤가량이며 그중 50%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25%내외이며, 거의 60%를 미국에서 수출하며, 나머지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는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 주요 수출국이며 그중 인도, 브라질이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활발한데 이는 인도와 브라질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직접 착유한 후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호밀이나 귀리, 보리 등이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량이나 국제교역량이 많지 않으며, 주로 옥수수 등의 대체원료로서 많이 이용된다. 특히 호밀과 보리의 경우 EU 및 캐나다의 시장지배력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료곡물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 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의 시장지배력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기상이변이나 농업정책의 변화, 항만 스트라이크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등락은 물론 수입국의 사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구소련이나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비중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농업의 흥작이나 기상이변 등은 마찬가지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교란을 가져온다.

결국 많은 양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사료곡물의 공급불안정에 대한 위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며, 특히 단일원료를 단일국가에서만 수입한다고 할 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료곡종을 옥수수 단일품목에서 수수, 사료용 소맥, 호밀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고, 수입선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다변화시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한 공급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원료가격의 상승은 주곡원료의 부산물인 소맥피, 채종박 등의 가격까지도 동반상승을 유발시켜 최근에는 이들 품목의 가격상승폭이 옥수수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곡물 등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과거 미산옥수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되던 중국산 옥수수, 사료용소맥, 소맥피, 타피오카 등을 이제는 미산옥수수로 대체해야 하다 보니 미산옥수수 사용량은 전체원료사용량의 5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고, 이로인한 가격인상요인은 단순한 미

산옥수수 가격상승폭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실정이다.

표1.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료원료가격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대부분 40~70%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산옥수수의 가격상승율은 중국산 옥수수나 사료용 소맥 등에 대비하면 더 큰폭으로 오른 셈이 된다. 이와 같은 큰폭의 원료가격상승과 함께 내륙수송비 및 보관비 등의 물류비용 상승과 맞물려 배합사료업체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사료업계는 90년대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는 향후 국제사료곡물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어질 전망이다.

### 3. 국내의 산업의 파급효과

한편 이상과 같이 미국의 가뭄피해로 인해 사료곡물공급 수준이 크게 떨어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미국의 농무성이나 농업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겠으나 미국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곡물수출량 확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더더욱 국내 소비용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옥수수의 과잉재고에 시달리면서 공급수준을 적정량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등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해 왔으며 금번 생산감소로 인해 수년만에 커다란 재정지출없이 생산을 감축하고, 잉여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이미 세계 곡물가격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카고 곡물시장의 가격은 1983년의 대일파와 1988년의 대가뭄시 기록했던 당시의 가격수준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국의 입장에서선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국가경제적으로는 수입부담이 늘게 되고, 개인기업은 채산성

이 어려워져 원가인상 압박을 받게되며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적정한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취약한 양축가의 경우 배합사료가격 등의 인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적자를 보거나 전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난 1983년 미국이 감산시책을 통해 사료곡물 생산을 감축하고, 그해 열파현상까지 겹쳐 사료곡물가격이 급등하자 그 여파가 국내 축산업에까지 몰아쳐 그 다음해인 1984년에 양돈농가수가 33% 줄면서, 전체사육두수는 18%나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양계농가도 전년대비 32%나 줄면서 사육두수는 6%나 줄었다.

한편 이같은 곡물가격의 폭등은 축산부문 뿐만 아닌 전체 우리나라 국제수지 및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1988년 미국의 대가뭄으로 곡가가 폭등하자 한국은행 물가조사국이 분석 발표한 [미국 곡가상승의 국내파급효과]에 따르면 1988년 7월 19일 기준 추가부담액은 2.5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만일 10%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3.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었다.

또한 도매물가는 당시의 현시세보다 10% 더 상승할 경우 0.2%의 추가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었다.

결국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불가분 국내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산업이 바로 축산사료산업인 것이다.

### 4. 고곡가 시대의 대응책

곡가급등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의 축산물 및 식료품 가격의 급등은 물론 주요수입국인 한국, 일본등의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배합사료 판매안정기금제도를 두어 배합사료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완충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이 국내 사료업계와 축산업계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있어 국제곡물가격 하락시에는 양축가들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실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금년도 한차례의 배합사료 가격인상을 통해 어느정도 인상요인을 흡수하였으나 '96년도 하반기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고가구매가 불가피했으므로 벌써부터 하반기 사료가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였어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폭의 배합사료 가격조정 및 내부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해 나갔으나 이제는 원료가격이 전년대비 약 60~70%씩 상승하는 현실에서 사료회사들도 원가절감만 가지고 사료가격 인상압박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사상유례없는 곡가폭등에 직면하여 최근 이에대한 대응능력이 정부는 물론 업계와 학계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일시에 공급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국내 생산을 통해 자급율을 높여나간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외국의 사료원료가격의 3~4배되는 원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곡가파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식량에 대한 자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차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사료용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되어왔고, 이에따라 수입선의 다변화, 수입곡종의 다양화를 통한 공급자 독점시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상황과 같이 대체곡물이 없고, 오히려 여타수입곡들의 가격이 더 큰폭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시카고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와 현지개발수입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선물거래는 현재 많은 국내사료회사나 곡물수입회사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의 속성상 일부분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현지개발수

입은 과거 일본의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일부나마 사료가격 인상을 완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규모 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전양축농가에 확대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전양축농가를 지원·장려해주고 지금에 와서 중소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 이후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원료의 관세 또한 일본과 같이 영세로 해주어야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사료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료용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 확대적용등을 모두 들어준다 하더라도 배합사료에 미치는 원가인상요인을 모두 상쇄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같은 정책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가격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축가들도 이와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은 이제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축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축산조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새로운 생산비 증가추세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대비하여 양축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은 스스로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

○필자 상담처 : (02)581-5721